

세션1 대외환경 및 거시

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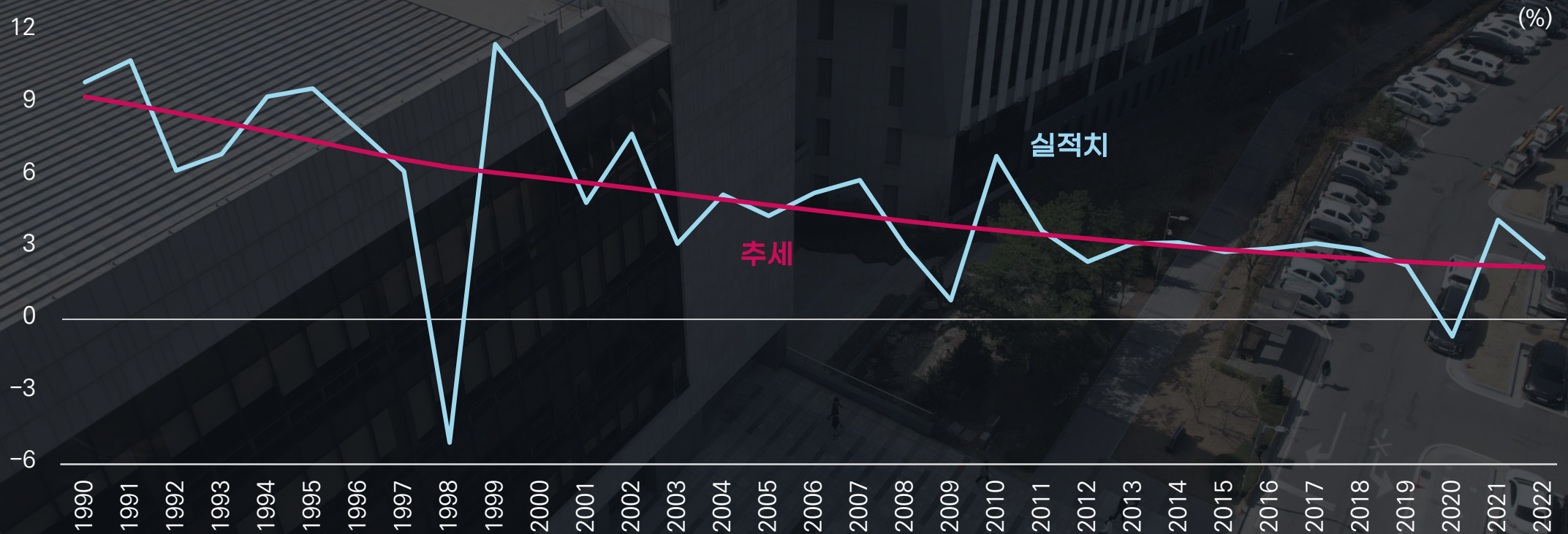
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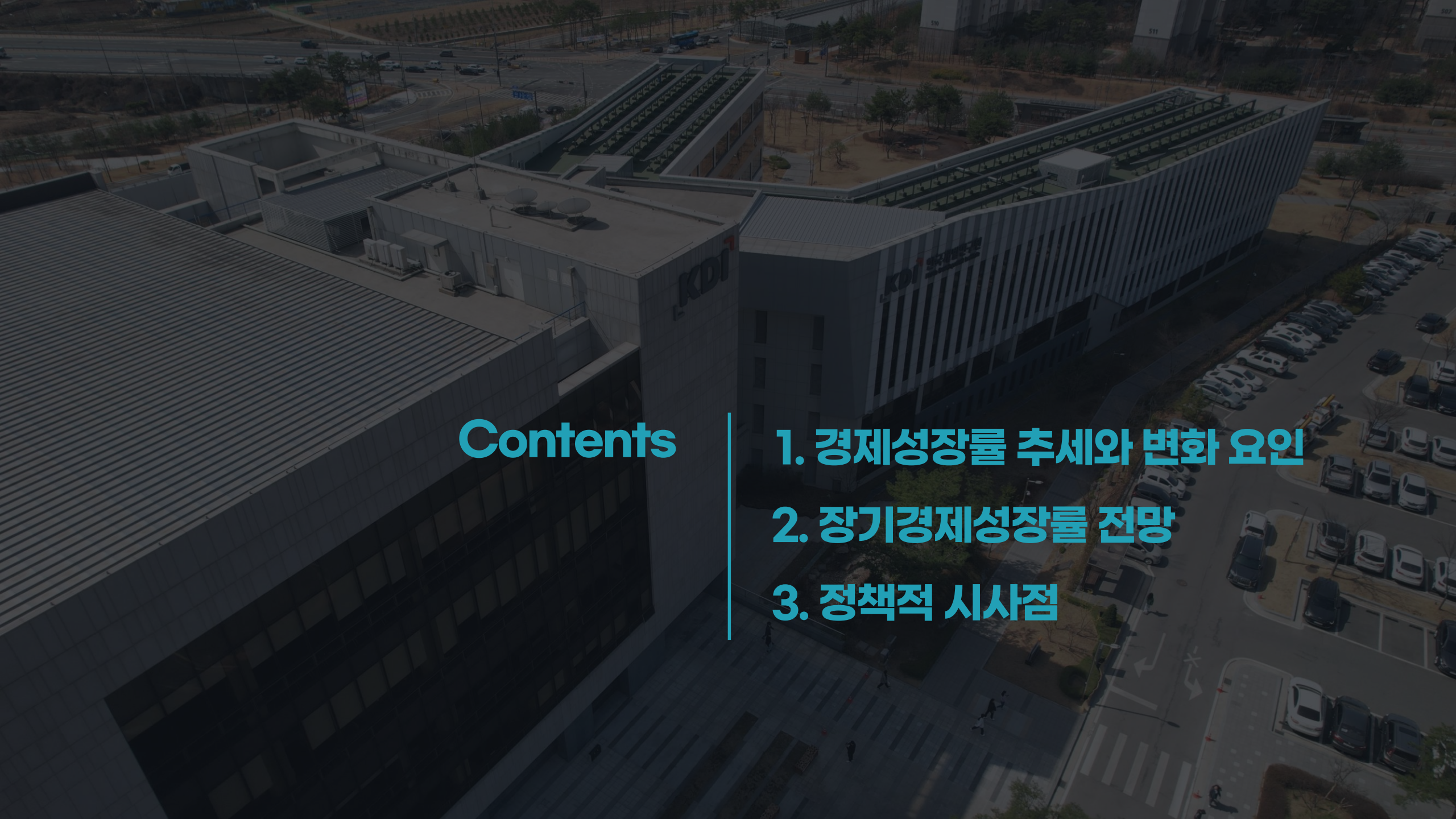
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세

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**10년마다 2%p 정도 하락하는 추세**를 보였으며,
현재 2% 내외로 추정됨.

한국의 경제성장률 실적치와 추세



주: 경제성장률 추세는 HP 필터를 이용하여 계산함.
자료: 한국은행; 저자 계산.



Contents

1. 경제성장을 추세와 변화 요인

2. 장기경제성장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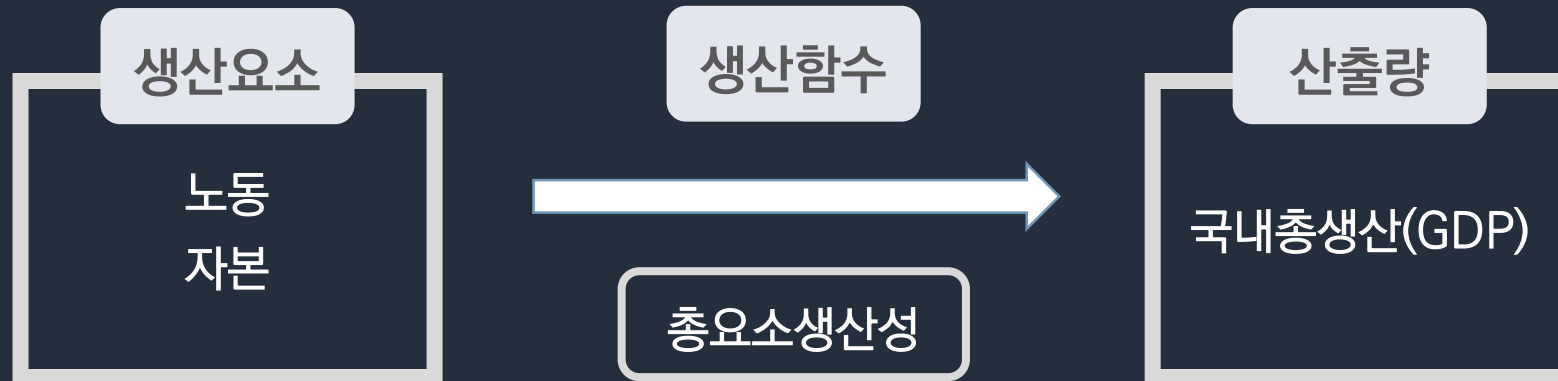
3. 정책적 시사점

An aerial photograph of a large, modern building complex, likely a university or research facility. The building has a distinctive architectural style with a mix of dark and light grey panels. A large, semi-transparent blue text overlay is positioned in the center-left of the image. The text reads "1 | 경제성장률 추세와 변화 요인" in white. The background shows a parking lot with many cars, some trees, and a road with a crosswalk. The overall scene is captured from a high angle, providing a comprehensive view of the building and its surroundings.

1 | 경제성장률 추세와 변화 요인

성장 회계

국내총생산(GDP)을 생산요소(노동, 자본)와 총요소생산성으로 분해하고, 각각의 성장기여도를 산출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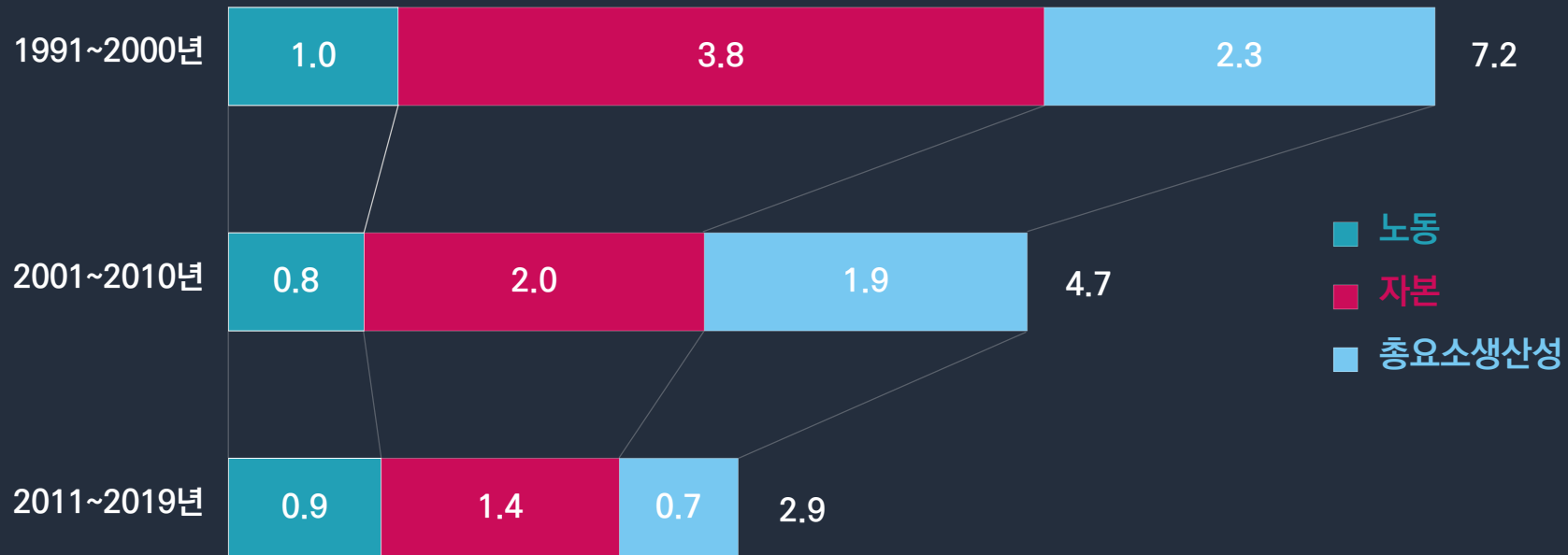


- ✓ 경제성장률 =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+ $\alpha \times$ (노동 증가율) + $(1-\alpha) \times$ (자본 증가율)
 - α 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나타내는 모수임.

2010년대의 생산성 증가세 둔화

2000년대에는 경제성장률 하락이 자본투입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한 반면,
2010년대에는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함.

경제성장률과 요소별 성장기여도



주: 반올림과 비선형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과 성장기여도 총합 간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.
자료: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.

총요소생산성 결정 요인

총요소생산성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,
대외 개방; 법제 및 재산권 보호; 금융, 노동, 기업활동 규제 등에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짐.

총요소생산성의 주요 결정 요인

- ✓ 혁신 및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실험을 활성화
 - 연구개발(R&D), 디지털화, 무형자산 투자
- ✓ 기존 기술의 확산을 증진
 - 공공 인프라, 인적자원 육성
- ✓ 자원 배분을 효율화
 - 경쟁 촉진, 대외 개방

➤ 제도, 지배 구조 등이 핵심 요인

자료: OECD/APO(2022).

한국경제 생산성 둔화의 요인

기술 향상의 속도 둔화

- ✓ 선진기술과의 격차 축소로 인한 '따라잡기'의 한계
- ✓ 경직적 교육에 의한 인적자원 개발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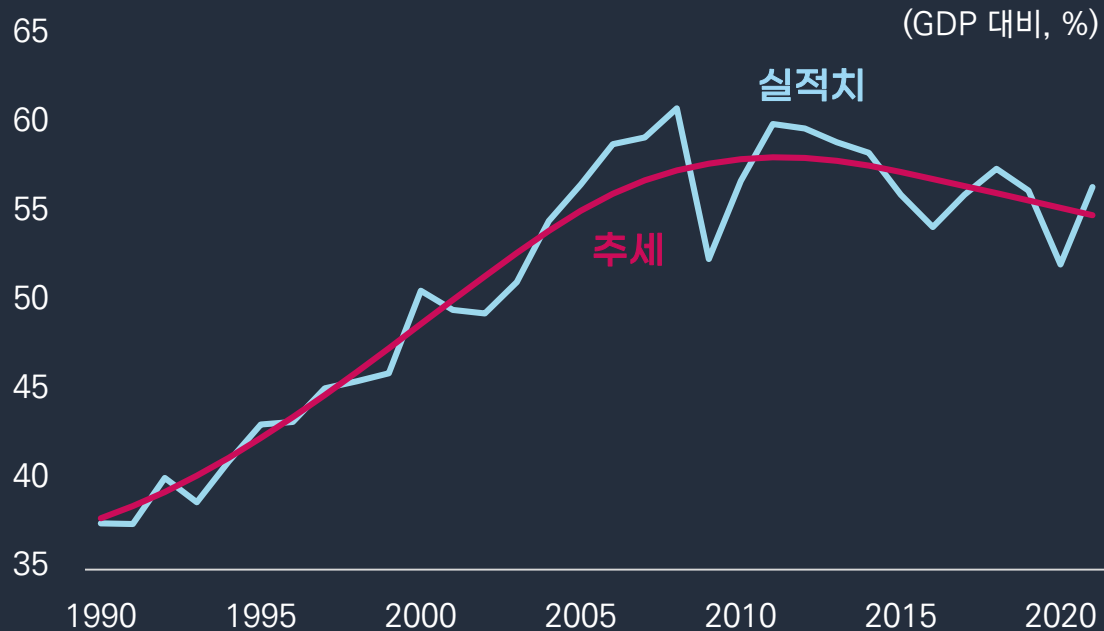
자원배분 효율성 저하

- ✓ 기업의 진입·퇴출 제한
- ✓ 경직적 노동시장에 의한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배분
- ✓ 과다한 정책금융에 의한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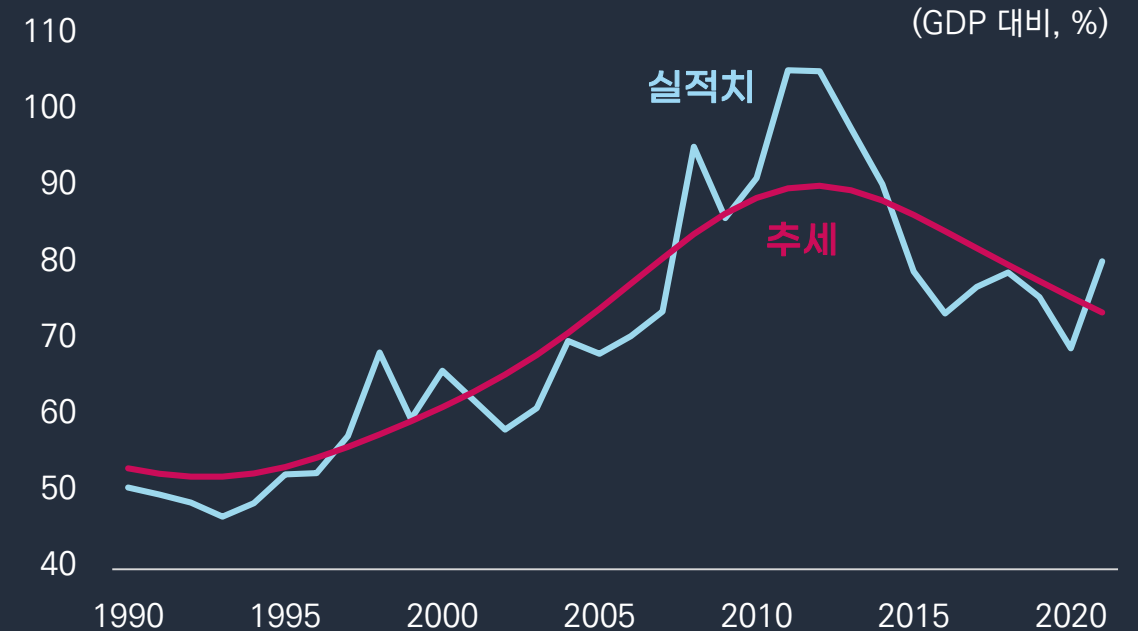
국제협력 약화

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임.

세계의 GDP 대비 무역 비율



한국의 GDP 대비 무역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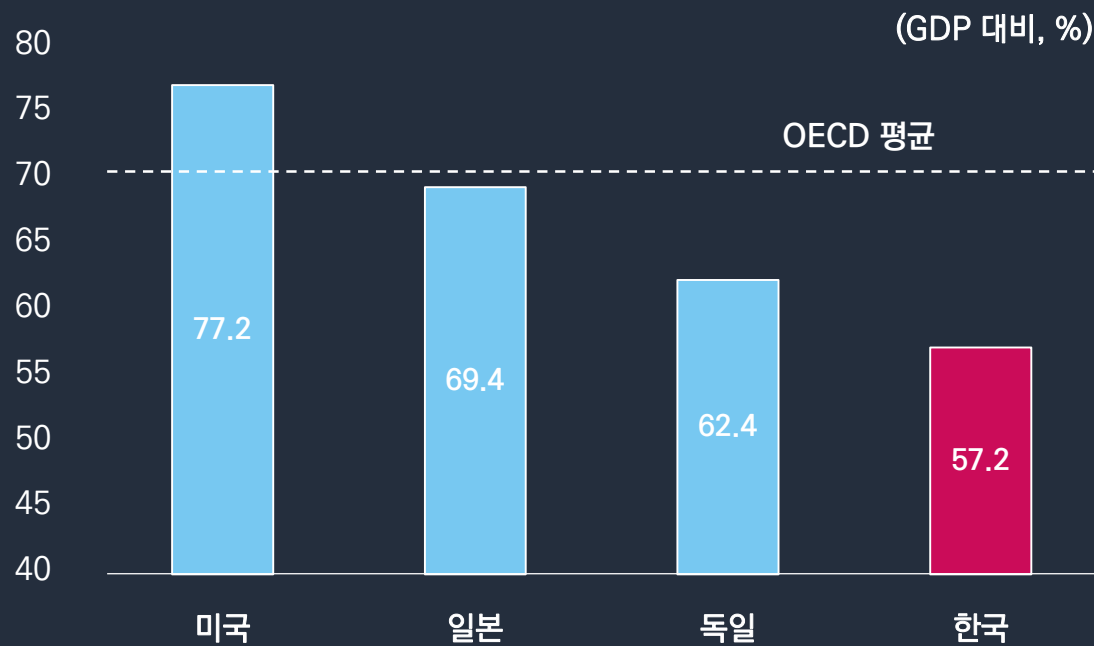


주: 무역은 수출과 수입을 합산하였으며, 추세는 HP 필터를 이용하여 계산함.
자료: World Bank, WDI; 저자계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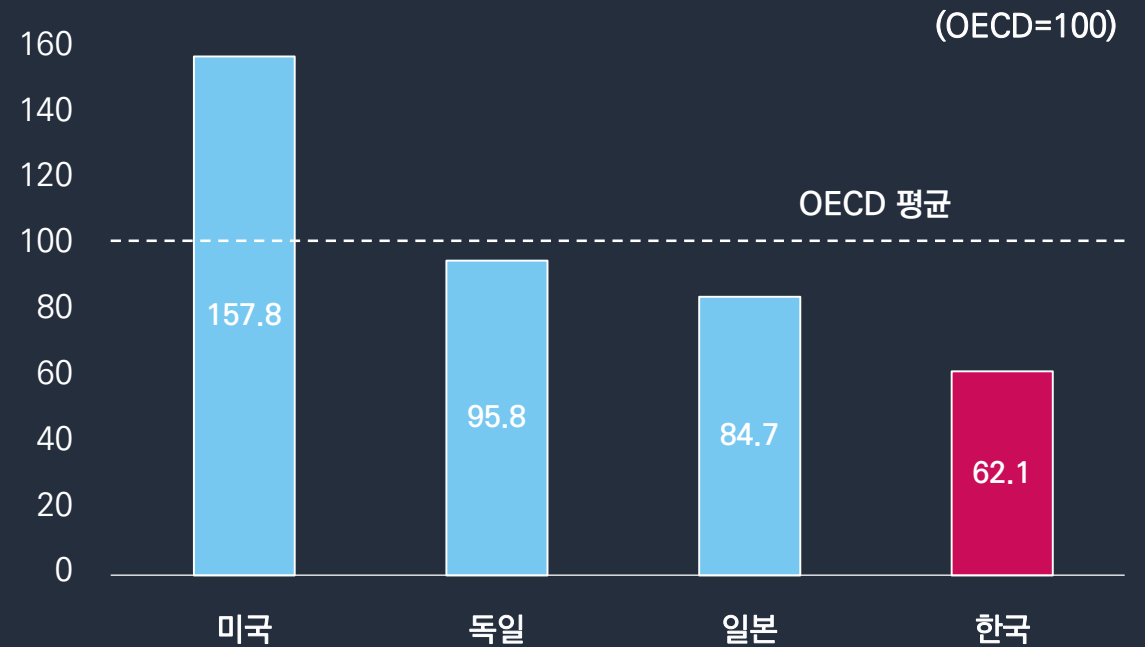
서비스업의 뒤쳐진 경쟁력

**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작으며,
이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데 주로 기인함.**

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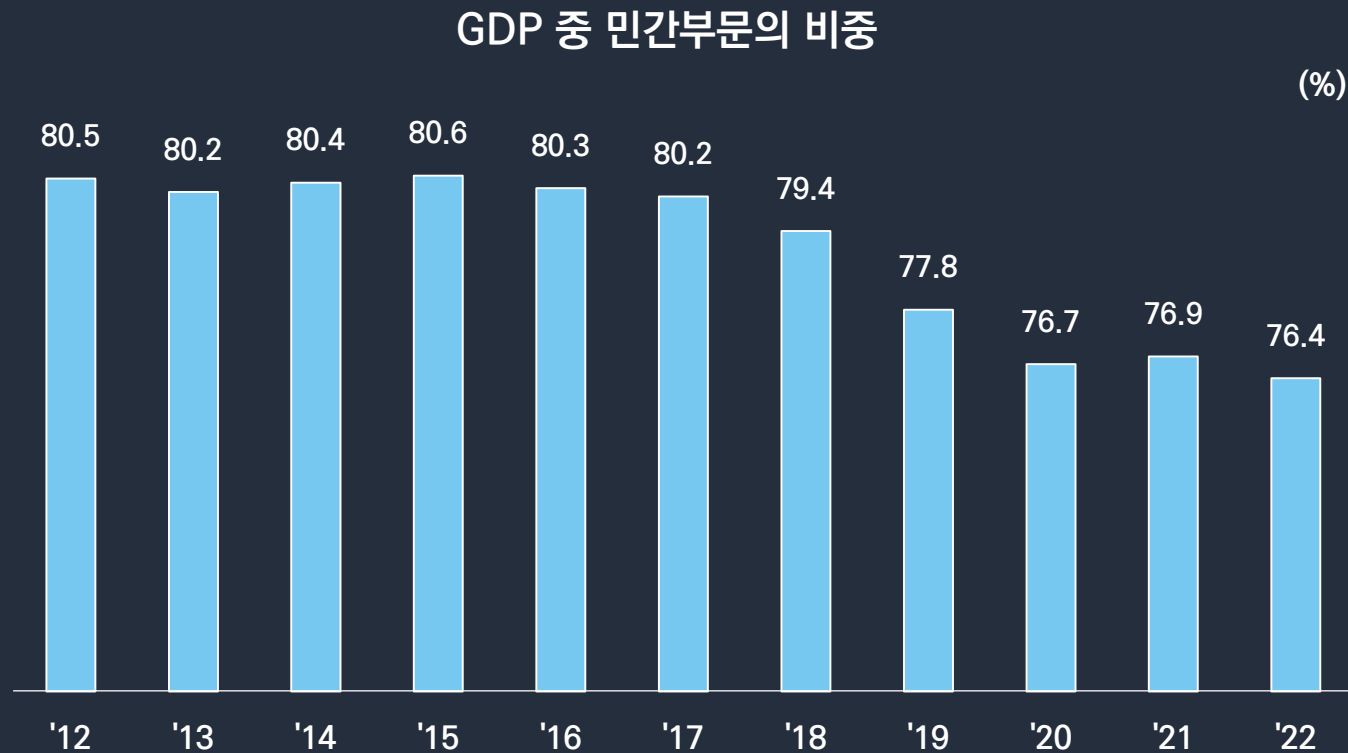
서비스업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



주: 2019년 기준임.
자료: World Bank, WDI.

민간부문의 활력 저하

2010년대 후반 이후 정부부문이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활력이
저하되고 있음을 시사



주: 민간부문은 국민계정 지출항목 중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를 제외한 부문임.
자료: 한국은행.

An aerial photograph of a large, modern building complex, likely a university or research facility. The building has a distinctive architectural style with a mix of dark and light grey panels. A large parking lot filled with cars is visible to the right of the building. A road with a crosswalk and some trees is in the foreground. The text "2 | 장기경제성장을 전망" is overlaid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.

2 | 장기경제성장을 전망

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제

- ✓ **기준시나리오(1.0%): OECD 상위(25~50%) 수준**
 - 한국의 1인당 GDP는 2011~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하위 32.2%에 해당
- ✓ **비관시나리오(0.7%): 2010년대의 흐름이 유지**
- ✓ **낙관시나리오(1.3%): OECD 상위 25% 수준**

OECD 회원국의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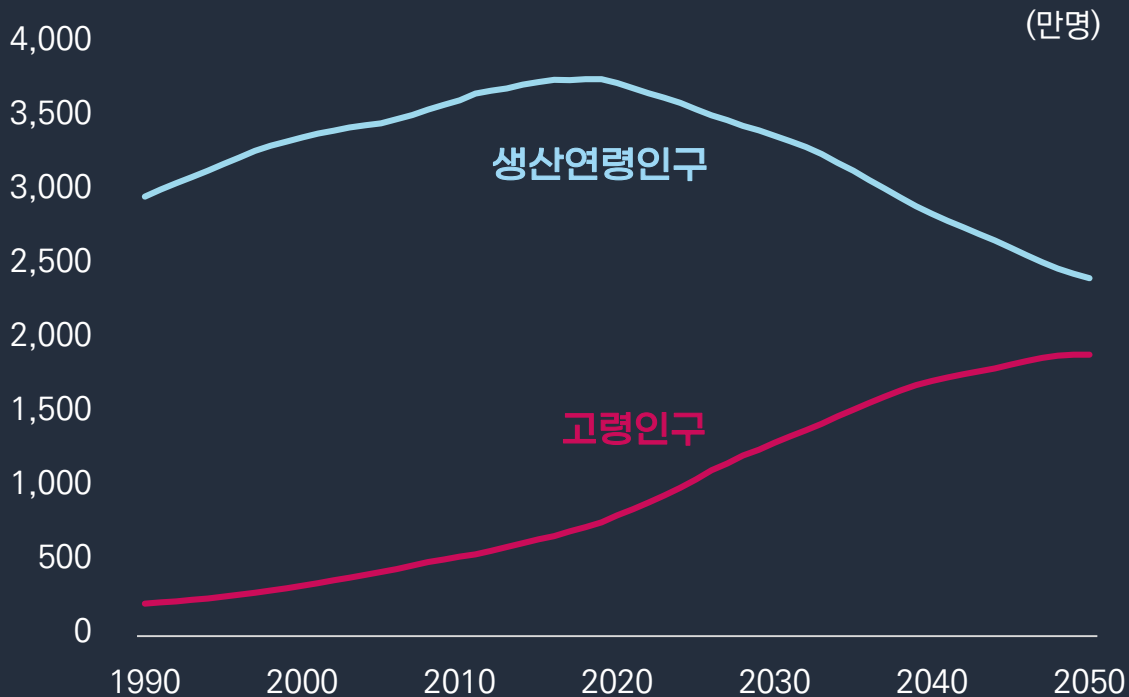
	OECD				
	Min	75%	50%	25%	Max
1981~1990년	-1.5	0.3	1.0	1.5	3.8
1991~2000년	-0.3	0.9	1.2	1.9	3.2
2001~2010년	-0.9	0.2	0.4	0.8	2.1
2011~2019년	-0.9	0.3	0.6	0.9	2.8
평균	-0.9	0.4	0.8	1.3	3.0

주: 1980년부터 자료가 가용한 32개국을 대상으로 설정함.
자료: Penn World Table 10.0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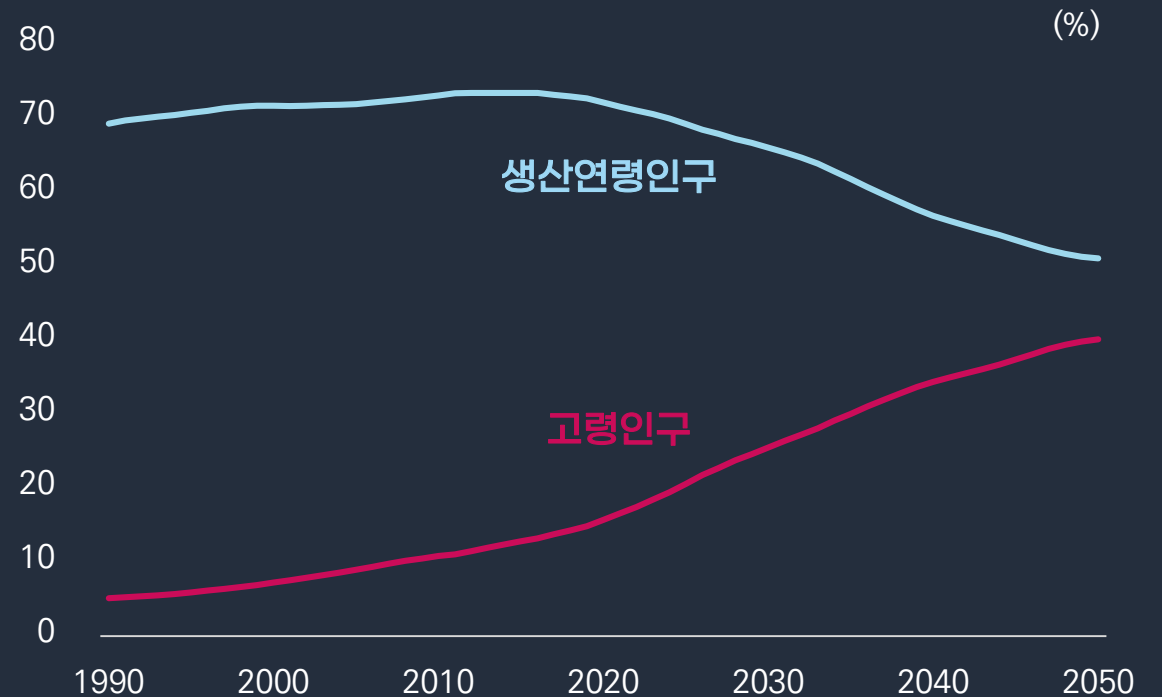
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

생산연령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하여 2020년대 이후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,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.1%에서 2050년 51.1%로 하락함.

연령대별 인구 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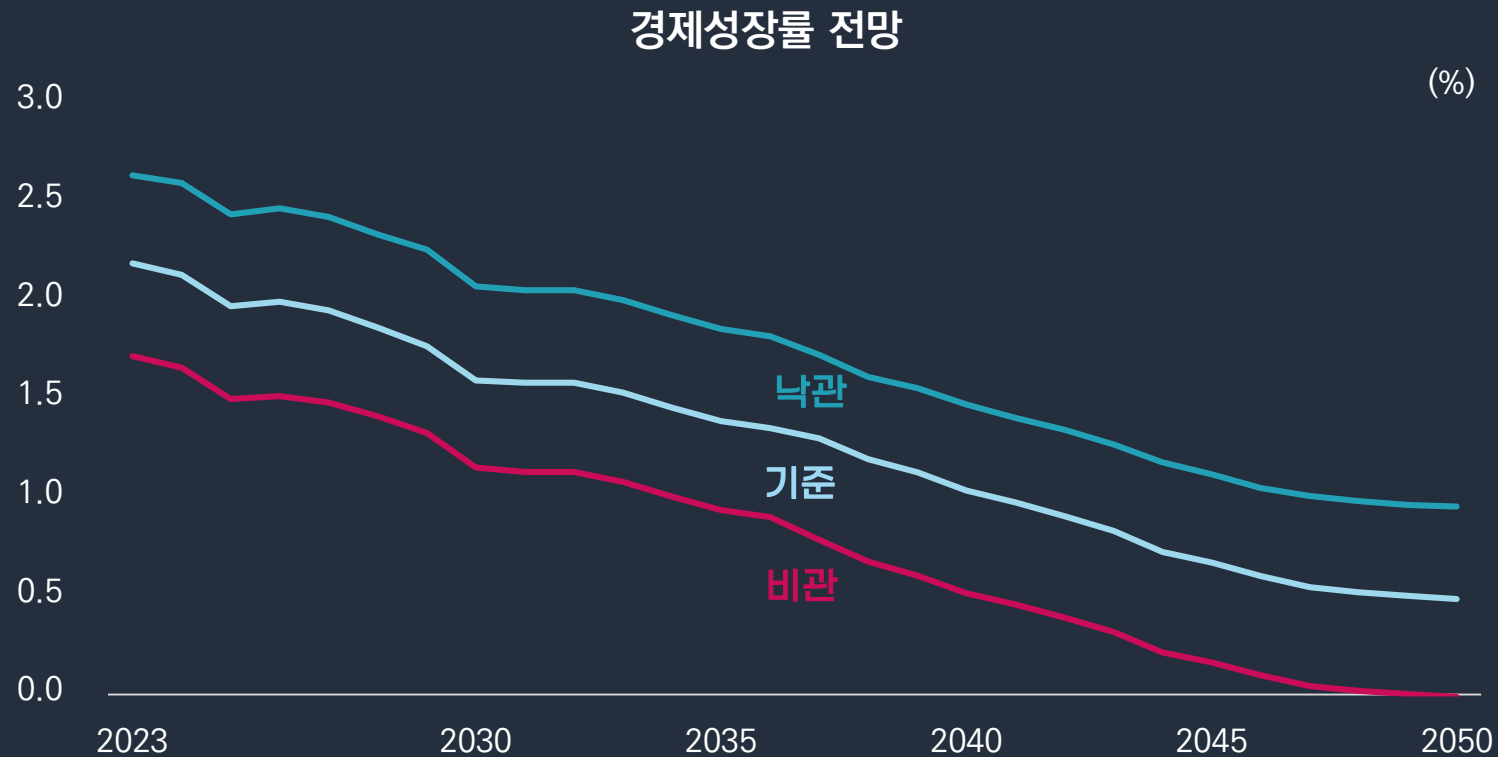
연령대별 인구 비중



주: 중위시나리오 기준이며,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는 각각 15~64세, 65세 이상 인구를 뜻함.
자료: 통계청, 장래인구추계: 2020~2070년.

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

한국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50년에 0.5% 내외로 전망되며, 생산성 개선이 부진할 경우 2050년에 0%의 성장률이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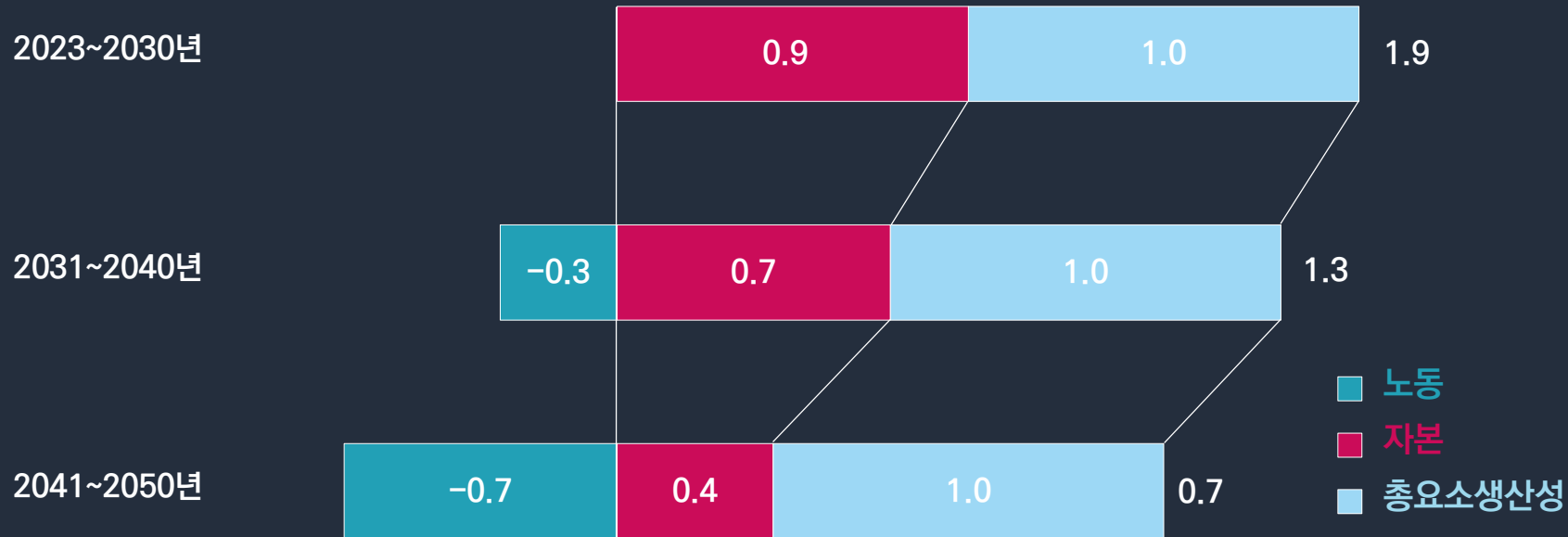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KDI 장기경제성장률 전망.

2020년대 이후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가시화

노동공급은 1991~2019년 중 경제성장률에 1%p 정도 기여하였으나, 2031~50년에는 성장에 마이너스로 기여를 하고, 그 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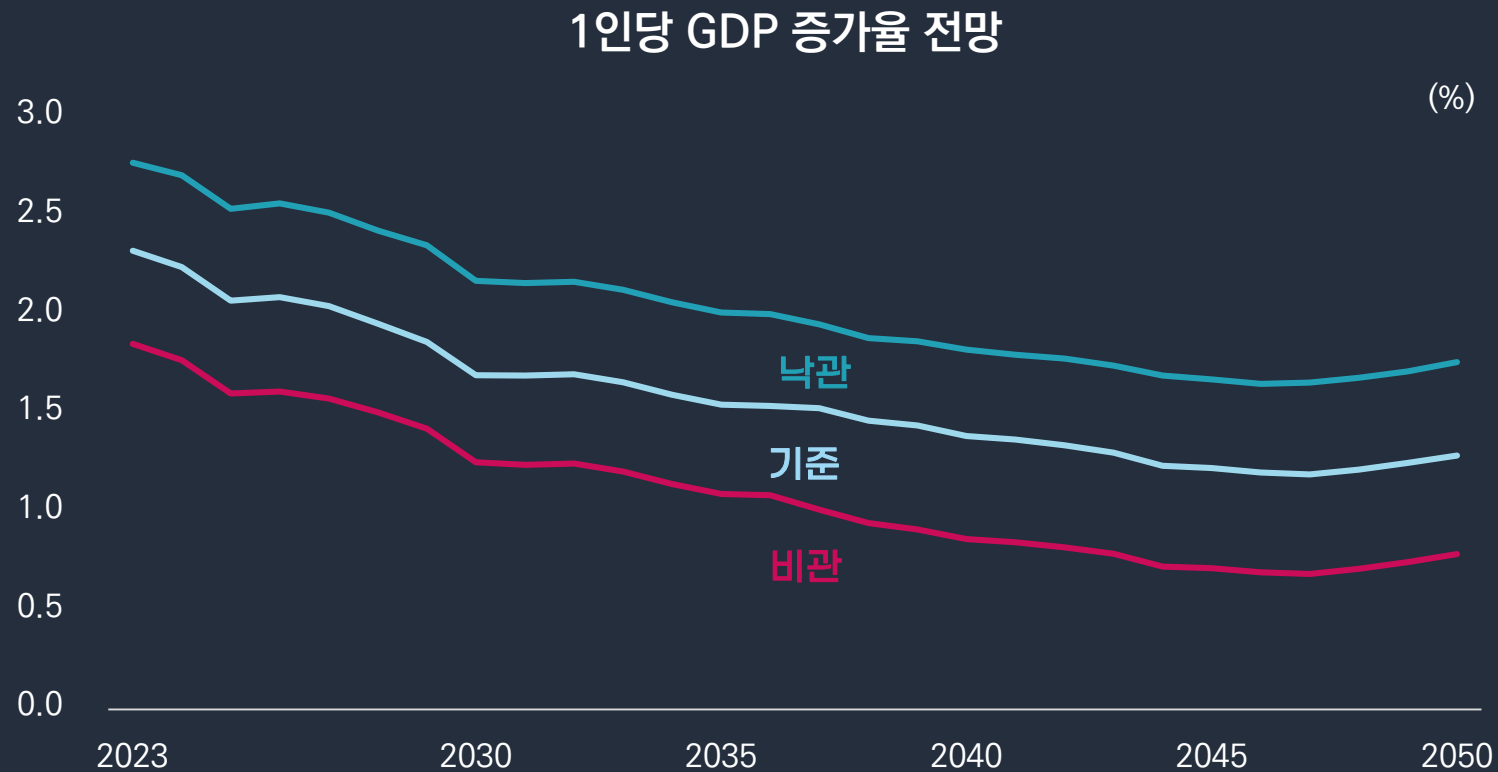
경제성장률과 요소별 성장기여도



주: 반올림과 비선형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과 성장기여도 총합 간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.
자료: KDI 장기경제성장률 전망.

한국의 1인당 GDP 증가율

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비중의 하락으로 인해 한국의 1인당 GDP 증가율은 2050년에 1.3% 내외로 전망됨(비관 시나리오: 0.8%).



자료: KDI 장기경제성장률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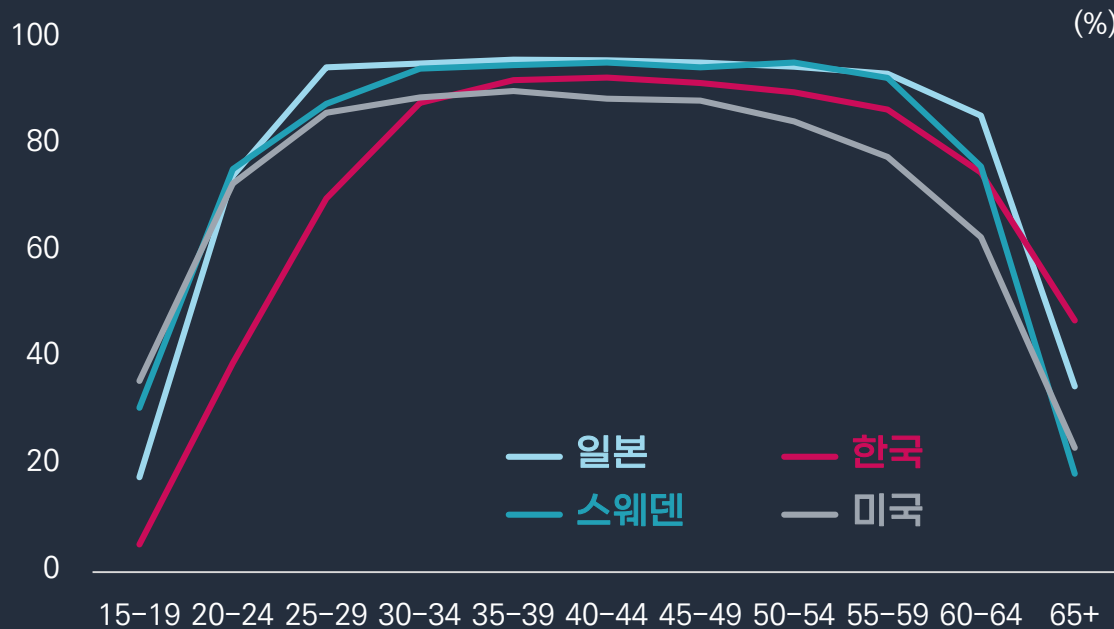
3 | 정책적 시사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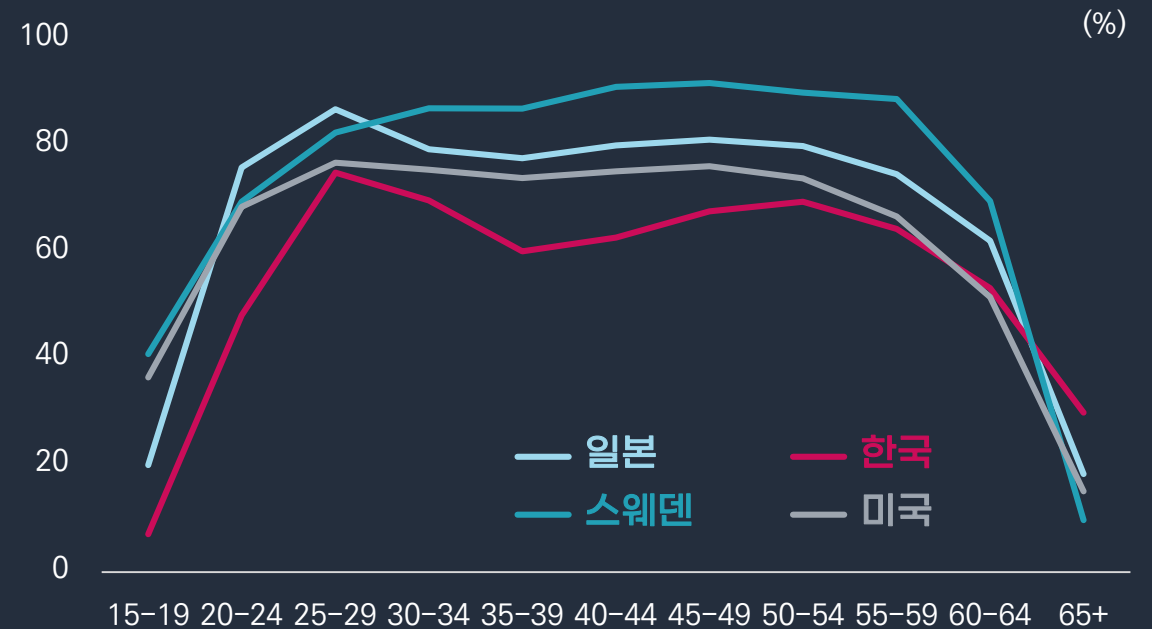
한국 청년층과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

- ✓ 여타 국가에 비해 한국의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함.
- ✓ 출산·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(이른바 M자 곡선)이 두드러지게 나타남.

남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



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



자료: OECD.

경제성장을 하락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향

생산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

- ✓ 교육 · 노동시장개혁(세션 III 주제)
- ✓ 상품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신성장 사업의 진출 활성화
- ✓ 경쟁력을 상실한 기존기업 존속보다, 기술력을 갖춘 신생 · 혁신기업 위주로 정책금융을 재편

노동공급 축소 완화를 위한 정책

- ✓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
- ✓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

감사합니다.